

덕진구, 사회보장급여 이용 체험 수기 '최우수상'

'나의 간절함에 미소로 답한 그녀'로 복지부로부터

덕진구(구청장 정태현) 생활복지과에서는 3일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사회보장급여 이용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받아 한부모 가정에게 상폐와 150만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체험수기' 공모전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도움으로 자립·자활의 기반을 삼아 어려움을 극복한 체험수기다.

이번 최우수상을 받은 '나의 간절함에 미소로 답한 그녀'라는 제목의 체험 수기는 한부모 가정에 희귀질환을 앓는 아들과 시춘기 딸과 함께 전주 친정집으로 쫓기듯 들어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 때 삶에 희망의 빛을 건네준 덕진구청 통합사례관리사인 곽선미씨의 사연이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의 길을 가기 위해 제과 제빵을 배우고 있는 수상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꿈을 잊지 말고 자랑스러운 엄마로 열심히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한편 덕진구 생활복지과에는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알콜·폭력 등 복합 문제를 지난 집중 관리대상자 200여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위기기정 발굴 상담 974건, 공공지원 연계 323건, 민간지원 745건 등을 연계해 오고 있다.

/김영재 기자



덕진구 생활복지과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 '사회보장급여 이용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무주 구천동농협, 조합원 자녀 21명에 장학금 전달

구천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양승숙)은 지난달 28일 조합원 자녀 21명을 선정하여 각 100만원 씩 총 2,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구천동 농협은 장학금 대상은 관내 설천고와 무풍고를 졸업한 조합원 자녀들 중 대학에 입학한 자녀를 선정했으며, 우수 인재 육성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1년 처음 전달한 이후 현재까지 180여명에게 1억8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천동농협은 대학 입학 장학금뿐만 아니라 지난 10 여년간 관내 초·중학교 졸업생에게도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표창과 장학금을 전달하며 관내 인재 육성에 일조하고 있다.

구천동농협 양승숙 조합장은 "장학금 수여식에서 농촌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다"며 "장학금 수여자들은 지역의 인재 이자 희망으로서 사회에 나아가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헌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인재로 성장해줄길" 당부했다. 이어 "농촌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 인재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학습 여건의 신장을 위해 인재 육성 및 장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산구, 건축·토목 등 점검반 편성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완산구(구청장 최락희)는 해빙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건축, 토목 기술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재난에 취약한 D급 시설물인 공동주택, 노후교량, 급경사지 등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9개 시설물에 대해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안전관리대책 추진기간 동안 각 동 자생단체 및 통·반장 회의를 통해 해빙기 재난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해빙기는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의 동결·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침하, 변형·변위 등이 일어나 붕괴사고가 우려되는 기간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축대·담장 및 절개지 등의 재난취약시설을 예찰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및 중대한 결함 발생할 경우 정밀안전점검과 함께 위험요인에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완산구청 건설과 김칠경 과장은 "점검반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주변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유도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이시그 노이데한 이하시... 30주 교전 200여 명 스가



덕진
원 사
고의
가족
리, 이
답장
이닐
음대와
의 행
박용
인드를
하겠다
정을

김제 공
김제경
의 내 대
다.

공덕과를
는 불법을
와 미현관
이들은
통학로
력이 우리
분을 지지
공덕여성
찰과 힘들
대 못지

의산경

의산경찰
시 30분
이 질 같
장과 김원
재무 문화
인증개시
이번 안
예방 활동
점을 두고
방법사설
식을 확산

